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상호관세 선반영 + 정치적 리스크 해소 기대

- 선반영된 상호관세, D-2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가시화
- 3월 수출 YoY 3.1% 증가, 반도체 +11.9% 상승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FX

[이달의 환율] 원화의 시련은 어디까지

- 대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되며 달러원 환율은 달러약세를 반영하지 못했음. 3월 하순에는 달러 반등에 연동되어 1,470원대 진입
- 4월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 불가피
- 달러원환율은 정치 불안 해소 시 하락폭 확대 가능하나 대외 달러가치 반등 조짐 나타나고 있어 이 역시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ESG

2025년 주주총회 리뷰 - 주주제안 분석

-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40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
-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
- 주주환원, 중소형사로 확산 가속화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News&Issue] 현대백화점: 동대문 면세점 철수 결정

- 동대문 면세점 철수 결정
- 변하는 면세점 산업 환경에 맞춰 무역센터점과 공항점 집중 예정
- 연간 고정비 절감 효과로 손익 개선 효과 크게 나타날 듯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1Q25 Preview] 유니드: 상반기 눈높이 상향 조정

- 1Q25 예상 OP 218억원으로 시장기대치(215억원) 부합 전망
- 벨라루스 감산 및 러시아 정기보수 영향으로 1H25 염화칼륨 수급 강세
- 중국 내 신규 설비(UHC, 9만톤) 및 CPs 가동률 상향 25년 실적 기여요소

위정원, jungwon.weee@daishin.com

[1Q25 Preview] 롯데관광개발: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드롭액 경신

- 1Q 카지노 방문객 수 및 드롭액 역대 최대치 경신하며 실적 호조 예상
- 한중 관계 개선 및 위안화 강세로 중국 방문객 수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 우려와 달리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상호관세 선반영 + 정치적 리스크 해소 기대

- 선반영된 상호관세, D-2
-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가시화
- 3월 수출 YoY 3.1% 증가, 반도체 +11.9% 상승

선반영된 상호관세, D-2

4월 2일(미국시간) 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주 기습적으로 발표된 자동차 관세와 전일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의 발언("연간 관세 수입이 6천억 달러에 달할 것")을 시장에서 금액을 보편관세 20% 시나리오로 재해석하는 등, 글로벌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한 뒤 오히려 기술적 반등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상호관세의 기초자료인 국가별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발표,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 FTA로 양국 간 산업재 및 소비자 대부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것이 기재되며 관세율 격차에 대한 우려는 덜어내었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비관세장벽을 상호관세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호관세 공개는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가시화

오전 중 4월 4일로 11시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 장 초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하락하던 흐름에서 상승반전. 일정 발표 이후 Polymarket에서 4월 중 탄핵 전망은 37%에서 60%대로 급등. 100일 넘게 이어진 행정부 수장 공백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치적 공백 안정, 달러원 환율 안정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치 테마주: 카카오(+7.9%), 오리엔트정공(+29.9%), 안랩(+4.7%) 등

3월 수출 YoY 3.1% 증가, 반도체 +11.9% 상승

3월 수출실적 반도체, 선박 등 중심으로 견조.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1.2로 호조인 것 또한 국내기업 실적 전망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

반도체 전년대비 11.9% 상승. DDR5, HBM 등 수출 호실적

관련종목: SK하이닉스(+3.3%), 삼성전자(+1.7%), 테크윙(+5.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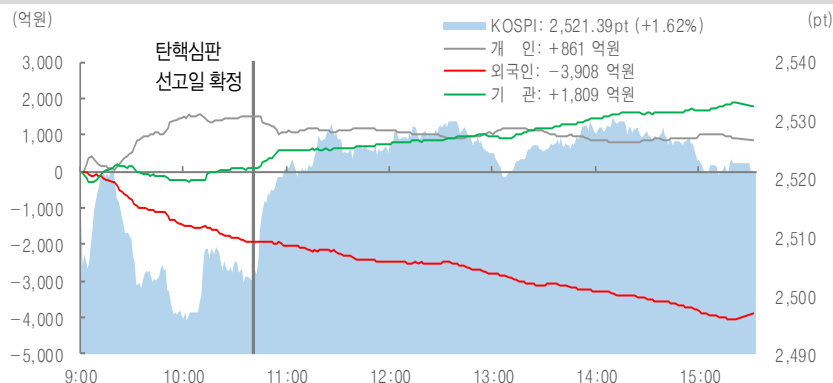
선박 수출 전년 대비 51.6% 증가, 15개월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

관련종목: HD현대미포(+8.1%), 삼성중공업(+4.2%), HD현대중공업(+4.3%) 등

기초화장품 전년대비 30.3% 증가, 지난해 대비 화장품 수출액 1위

관련종목: 실리콘투(+10.4%), 브이티(+8.1%), 아모레퍼시픽(+4.4%)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FX

Economist /FX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원화의 시련은 어디까지

3월 외환시장 리뷰: 간만에 약해진 달러

미국 성장 둔화 시그널에 국제금리 레벨 다운된 가운데, 유로화 강세 폭 확대되며 달러인덱스는 장 중 102pt까지 하락

유로화 수요는 독일의 재정확대 의지에 러-우 휴전 가능성 유입, EU의 대규모 방산 투자 기대 등이 견인

그러나 달러원 환율은 달러약세를 반영하지 못했음. 대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지연되는 가운데, 3월 하순에는 달러 반등에 연동되어 1,470원대로 상승 마감

4월 외환시장 프리뷰: 방향성<변동성

미국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각 국가와 협상하는 데 상당 시간 소요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불가피

중기 관점에서 관세 불확실성 완화되면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미 성장동력 확보 여부로 시장 관심 이동 가능, 이 경우 대미투자 수요 개선되며 달러가치 반등 예상. 4/2 이후 무역갈등이 더욱 확산될 경우에도 안전선호 심리가 달러 수요 뒷받침할 전망

한편 유럽의 정책 시행 및 실물지표 개선이 기대보다 느릴 경우 유로화 추가 강세는 제한될 공산이 크며, 달러 약세를 제한할 소지

향후 3개월 FX 전망

	USD	EUR	JPY	CNY
Fundamental	0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지속 •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하방 및 물가 상방 리스크 부각	0 • 독일 제조업 중심 경기 저점 통과 • 다만 국가별로 경기 모멘텀 차별화 가능성 • 예상보다 빠른 디스인플레이션	0 • 춘투 임금협상 양호, 쌀값 포함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 다만 관세는 수출 경기에 부정적이며, 높은 물가가 소비심리 훼손할 가능성 잔존	+ • 내수 저점 통과 조짐 • 물가 및 신용 지표 반등 속도는 완만
Policy	+ • 연준 신중한 스태프 지속 • 관세 정책 불확실성 완화 • 그 외 감세/규제완화에 관심 이동 가능	0 • ECB 금리인하 속도조절 • EU 재정확대 의지 확인 • 그러나 실제 정책 시행이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 잔존	0 • BOJ 대내외 여건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 예상 • 참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 이슈 모니터링 필요	+ •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내수 확대 기조 유효 •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경기개선 기대 작용 가능
Sentiment/Trading	+ • 관세 협상 과정에서 변동성 불가피, 안전선호 심리 유입 가능 •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대미투자 수요 개선 가능성	0 • 무역협상 과정 모니터링 필요 • 러-우 종전 가시화 시 유로화 강세 요인이나, 이미 어느정도 반영	+ • 엔캐리 청산 유인 제한적 • 안전선호 심리 확대될 경우 엔화 수요 뒷받침 가능성	0 • 주식 차익실현 수요 유입 가능성 • 그러나 내수부양 기조, 실물지표 개선 조짐에 힘입어 상반기 양호한 투자심리 유지될 소지
Range	100~112	0.98~1.10	140~158	7.00~7.40
KRWUSD	• 대내 정치 불안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위협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부각 불가피.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쳐 환율은 연고점 상회할 가능성 열어둘 필요 •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환율 상향 변동성 제한될 수 있으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 환율 하락 폭 확대 가능 • 그러나 대외 달러가치 반등 조짐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수단 역시 대미투자 확대와 같이 결국 달러 수요를 뒷받침할 공산이 큼. 이에 달러원 환율 하락폭이 확대되더라도 여타 통화가치와 기 맞추는 수준을 예상하며,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 향후 3개월 Range: 1,380~1,530원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SG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2025년 주주총회 리뷰 – 주주제안 분석

- 올해 정기주총에서는 40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
-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
- 주주환원, 중소형사로 확산 가속화

'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40개 상장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4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총 164개의 주주제안이 상정되었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18건(11.0%)에 불과했고, 부결이 90건(54.9%), 자동 폐기는 56건(34.1%)을 차지했다. 특히 임원 선임 및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주주 제안이 전체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하여, 주주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넘어 이사회 구성과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

2025년 정기주총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주주제안은 전체의 5.0%(8건)였으며, 실제 가결된 안건은 없었다. 그러나 주주제안의 낮은 가결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자사주 소각 결정 건수는 최근 5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4년 소각 예정금액은 약 11.2조원으로 전년(4조원)의 약 3배에 달하며,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주주환원, 중소형사로 확산 가속화

여전히 대형사의 주식 소각 규모가 압도적이지만, 중소형사의 주주환원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중형사와 소형사의 주식 소각 결정 건수가 대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특히 중형사의 소각 예정금액이 약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 이는 주주환원 정책이 대형사에서 중소형사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향후 중소형주 투자전략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을 시사한다.

그림 1. 2025년 정기주총 주주제안 결과(총 1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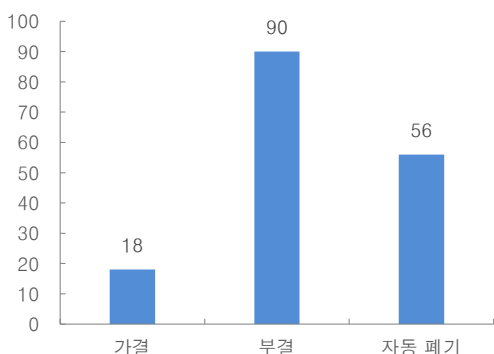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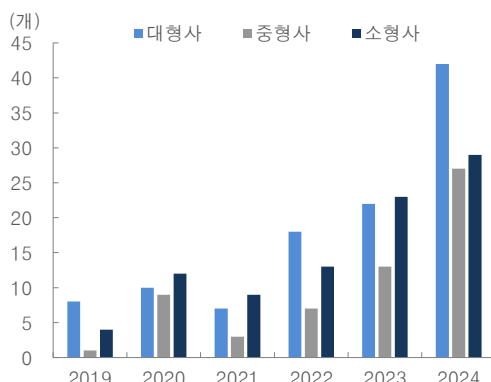


그림 2. 코스피 상장사 시총 규모별 자사주 소각 공시 기업 수



현대백화점 (069960)

유정현

junghyun.yu@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70,000

상향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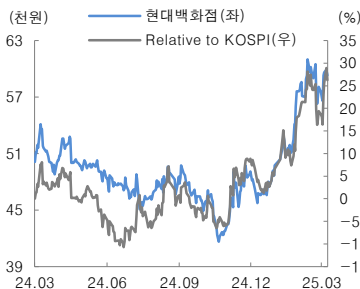
59,300

(25.04.01)

유통업종

KOSPI	2521.39
시가총액	1,34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6%
자본금(보통주)	11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61,000원 / 41,65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3억원
외국인지분율	22.85%
주요주주	현대지에프홀딩스 외 2 인 39.71% 국민연금공단 10.03%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9	25.5	21.3	9.6
상대수익률	4.3	19.4	24.7	19.5



동대문 면세점 철수 결정

- 동대문 면세점 철수 결정
- 변하는 면세점 산업 환경에 맞춰 무역센터점과 공항점 집중 예정
- 연간 고정비 절감 효과로 손익 개선 효과 크게 나타날 듯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0,000원으로 상향(+16%)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70,000원으로 상향(+16%). 목표주가 상향은 동대문 면세점 폐점에 따른 2025-2026년 실적 조정에 기인함

국내 면세점 산업이 따이고 출혈 경쟁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에 돌입. 경쟁사가 따이고와 거래 중단 결정을 내리고 동사도 동대문점 철수 결정. 향후 무역센터점과 공항점을 럭셔리 MD를 중심으로 출혈 경쟁 없이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손익 개선이 가시권에 진입했다고 판단됨. 당장 2026년 영업이익 증익 효과가 커서 동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변하는 면세점 산업 환경에 맞춰 동대문점 철수 결정

동사는 현재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 동대문점 영업 중단을 결정. 이는 면세사업 효율성 제고와 시내면세점의 효율적 영업을 위한 것을 위한 것으로 효율화 배경에는 국내 면세점 산업이 1)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와, 2) 기존 중장년층 패키지 여행에서 최근 2030세대 개별 자유 여행으로 여행 트렌드 변화, 3) 중국 귀차오(애국소비) 열풍으로 인한 수요 부진, 그리고 4) 경쟁 심화로 인한 대량 할인 경쟁으로 면세점 부문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

동대문점은 2025년 8월부터 운영을 종료할 예정. 동대문점의 저효율 MD 정리 및 고효율 MD를 무역점으로 이전할 계획. 이로써 적자가 지속되던 시내면세점은 중기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 동대문점 철수와 관련한 1회성 비용은 대략 50억원 내외로 예상(자산관련 회계적 손상 30억원 3분기, 기타 20억원)

동대문점 철수로 2025-2026년 영업이익 각각 8%, 13% 개선 효과

회사측에 따르면 면세점 연간 고정비가 기존에 약 1,800억원에서 2026년부터 1,450억 수준으로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서 약 350억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 지난 해 시내면세점 영업적자는 5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동대문점 철수로 동대문점 적자가 소멸되고 효율이 개선되면서 무역센터점 단독 운영 시 2026년에 시내점만도 BEP 달성 가능성도 존재. 동대문점 철수 효과가 연간으로 나타나는 2026년에는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 13% 개선되는 효과 예상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순매출액	4,207	4,188	4,711	4,775	4,841
영업이익	303	284	370	411	449
세전순이익	42	6	325	377	459
총당기순이익	-40	-1	247	287	349
지배지분순이익	-80	-36	197	250	304
EPS	-3,409	-1,543	8,721	11,037	13,421
PER	NA	NA	6.7	5.3	4.3
BPS	190,900	188,635	202,394	213,083	226,865
PBR	0.3	0.3	0.3	0.3	0.3
ROE	-1.8	-0.8	4.4	5.3	6.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백화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니드 (014830)

위정원

jungwon.weee@daishin.com

투자의견

6개월 목표주가

92,000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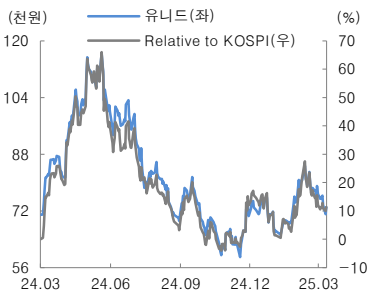
(25.03.31)

71,100

화학업종

KOSPI	2521.39
시가총액	49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3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16,500원 / 59,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6억원
외국인지분율	10.23%
주요주주	유니드글로벌상사 외 10 인 45.56% 국민연금공단 6.0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3	1.1	-6.0	-11.4
상대수익률	-8.9	-3.8	-3.4	-3.4



상반기 눈높이 상향 조정

- 1Q25 예상 OP 218억원으로 시장기대치(215억원) 부합 전망
- 벨라루스 감산 및 러시아 정기보수 영향으로 1H25 염화칼륨 수급강세
- 중국 내 신규설비(UHC, 9만톤) 및 CPs 가동률 상향은 25년 실적 기여요소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92,000원으로 유지

목표주가는 25E 162,544원에 Target PBR 0.61배 적용. Target Multiple은 21년도 이전 염화칼륨 300~350달러/톤 당시의 멀티플 평균치 감안해 산정

25년도 실적 개선요소 점검: 염화칼륨 가격 강세

중국 내 염화칼륨 가격 반등(461달러/톤, YTD +26.5%)하며 1H25 실적 눈높이 상향 조정. 국내 수출입가격 기준 수산화칼륨(KOH) 1~2월 평균판가 683달러/톤으로 QoQ +5.4% 상승, 원재료 래깅 감안 시 스프레드 큰 폭으로 상승(151.6달러/톤, QoQ +55.8%). 상반기 공급 감소로 글로벌 염화칼륨 가격 강세 지속 전망. 25년 1월 벨라루스 염화칼륨 감산(100만톤, 글로벌 생산량의 1.5%)에 이어, 2Q 이후 러시아 생산량 감소. 러시아 염화칼륨 생산업체인 우랄칼리(Uralkali)의 정기보수로 2Q 생산량 30만톤 감소 예정.

25년 2월 우랄칼리는 25년 상반기 염화칼륨 수출 물량 전량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언급. 또한 Canpotex(Canadian Potash Exporters)에 따르면 캐나다 염화칼륨 판매 물량 역시 현재 25년 6월 30일까지 전량 계약을 완료한 상태. 상반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판가 인상이 가능한 수급 강세 여건 마련

1Q25 Preview: 예상 OP 218억원으로 컨센서스(215억원) 부합 전망

스프레드 개선 외에도 일회성 비용 제거에 따른 기저효과로 1Q25 예상 OP 218억원 QoQ +75.4% 전망. 국내 예상 OP 115억원(QoQ +105%) 전망. 환율 상승 및 가동률 상승(4Q 75% → 85~90%)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기인.

해외(중국) 예상 OP 104억원으로 QoQ +61.8% 전망. 중국 UJC, OJC 가동률 95% 이상 유지되는 가운데, 신규공장(UHC, 9만톤) 가동률 램프업하며 판매량 QoQ 개선. 염소파라핀(CPs) 공장 가동률 4Q 대비 점진적 상승하며 염소 자체 소비량 증가. 단, 1Q의 경우 춘절 영향으로 중국 내 염소 가격 하락하며 염소 판매에 따른 적자 소폭 확대(150억원 가정) 불가피.

동사는 제품 수출 비중 90% 이상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우호적 영업환경 지속되는 가운데, 1Q25 SCF 평균치 1,761로 QoQ -21.9% 하락하며 원가 절감 효과 발생. 탄소포집(DAC) 및 수전해설비 확대에 따른 중장기 스토리 유효한 가운데, 25년 염화칼륨 수급 강세에 따른 단기 실적 매력 역시 높다는 판단

(단위: 십억원, %)

구분	1Q24	4Q24	직전추정	당사추정	1Q25(F)			2Q25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55	276	373	336	31.9	21.9	318	382	30	13.6
OP	27	12	23	22	-20.6	75.4	22	42	20	93.2
순이익	22	8	20	18	-16.4	138.3	18	37	37	106

자료: 유니드,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롯데관광개발 (032350)

임수진

soojin.l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4,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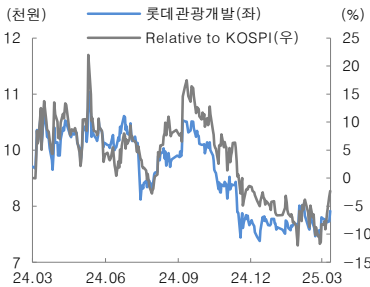
(25.04.01)

8,220

레저업종

KOSPI	2521.39
시가총액	62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3%
자본금(보통주)	38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840원 / 7,56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5억원
외국인지분율	5.50%
주요주주	김기병 외 4 인 39.46% 국민연금공단 5.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	7.5	-19.3	-20.5
상대수익률	1.7	2.3	-17.0	-13.4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드롭액 경신

- 1Q 카지노 방문객 수 및 드롭액 역대 최대치 경신하며 실적 호조 예상
- 한중 관계 개선 및 위안화 강세로 중국 방문객 수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 우려와 달리 가파른 성장이 지속될 전망으로,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4,000원,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에 대해 한시적 무비자 정책이 시행될 예정. 제주도가 독점적으로 누리던 무비자 혜택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제주 여행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과도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며 주가는 제자리에 머무는 모습. 다만, 한중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속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방문 중국인 수는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중이며, 위안화 강세도 유지되고 있음. 이에 제주도 역시 올해 중국인 방문객 수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또한, 올해에는 동경 노선 확대 및 동경 사무실 오픈이 예정되어 있어 일본 고객 유입도 확대될 전망. 연초 우려와 달리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 유지

1Q25 Preview: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드롭액 경신

1분기 연결 매출액 1,219억원(QoQ +10%, YoY +15%), 영업이익 136억원(QoQ +325%, YoY +48%)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됨. 1분기는 제주 지역 특성상 연중 가장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방문객 수 및 드롭액의 가파른 성장이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

[카지노] 매출 845억원(QoQ +10%, YoY +15%) 전망. 1분기 카지노 방문객 수는 약 11만명(YoY +25%), 합산 드롭액은 4,819억원(YoY +25%)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홀드올도 우려와 달리 19% 수준의 높은 수치를 유지

[호텔] 매출 133억원(QoQ -23%, YoY +20%)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카지노 고객의 객실 사용 비중이 확대하며 연결 대상에서 제거된 영향. 별도 기준 매출은 3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성장하여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

[여행] 매출 219억원(QoQ +47%, YoY +22%) 전망. 올해 1분기부터 크루즈 전세선 운항을 시작했으며,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회씩 운항 예정. 패키지 부문의 경우, 여행 업황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동사의 프리미엄 중심 상품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2A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184	314	471	605	703
영업이익	-119	-61	39	95	135
세전순이익	-224	-213	-123	-29	40
총당기순이익	-225	-202	-117	-28	38
지배지분순이익	-225	-202	-117	-28	38
EPS	-3,136	-2,721	-1,531	-367	499
PER	NA	NA	NA	NA	16.0
BPS	3,283	931	4,160	4,639	6,837
PBR	4.4	10.1	2.0	1.8	1.2
ROE	-154.2	-132.9	-60.4	-8.4	8.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롯데관광개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